“비상진료·종합상황실 운영” 광주시, 추석종합대책 가동

14~18일 재난·사건·사고 대비 시민생활안정 3개 분야 종합대책 추진
영락공원 시내버스 연장 운행·응급의료기관 26곳 운영 등 편의 제공

광주시가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추석 명절 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연휴 기간인 14일부터 18일까지 폭염·태풍 등 각종 재난과 사건·사고 대비한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또 120콜센터 등을 통해 명절 기간 응급의료기관 운영현황, LP가스 공급업소 현황, 민원서류 발급기 현황 등을 안내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크게 시민생활안정, 비상진료 및 감염병·식중독 예방, 물가안정 등 3개 분야, 10개 항목, 46개 과제로 구성됐다.

시민생활안정 대책 분야는 각종 재난 및 안전 관리, 귀성객 교통소통 및 성묘객 편의, 소외이웃 지원, 수돗물·연료의 안정적 공급,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 6개 항목 35개 과제를 중심으로 시행한다.

성묘객 편의를 위해 연휴기간 시내버스 지원15번, 용전 86번, 518번을 영락공원까지 경유·연장 운행하고, 추석 당일인 17일에는 광주종합버스터미널을 경유하는 518번 버스를 증차 운행하는 등 시내버스 특별 수송대책을 마련했다.

또 모든 시민이 따뜻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비수급 위기가정을 발굴·지원하고, 취약노인·장애인·저소득 아동에게도 누수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활한 급수 공급을 위한 급수 종합상황실과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노점상, 노상적치물, 불법광고물 등을 일제 정비한다.

비상진료 및 감염병·식중독 예방대책 분야는 빈틈없는 방역·의료 대응체계 유지와 감염병·식중독 예방대책 등 2개 항목 5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명절기간 응급의료기관 26개소와 문여는 병원·약국을 운영한다. 당직의료기관 지정 명부는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에서, 연휴기간 문여는 병원·약국은 시·자치구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특히 명절 연휴 기간에도 공공심야·달빛어린이 병원인 광주기독병원은 밤 12시까지 운영하며, 광주센트럴병원은 14일 밤 9시, 15~18일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물가안정대책 분야는 물가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와 근로자 체불임금 해소 등 2개 항목 6개 세부과제를 시행한다.

물가상승 우려 높은 품목 가격표시제 실태점검 등을 통해 추석 명절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전통시장 이용과 로컬푸드 직매장 및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동복호 수몰지역 이주민을 대상으로 ‘동복호 이주민 쉼터’를 운영하는 등 성묘객을 위한 편의 제공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박윤원 광주시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재난·안전·급수·교통·환경·청소 등 모든 분야에서 빈틈없는 시민생활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탄소 중립 실현” 치평 감탄마을 주민총회

광주 서구의 치평 감탄마을 주민총회가 지난 7일 오후 광주상무시민공원에서 열렸다. 주민총회에 앞서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한 주민자치회원, 시민들이 폐현수막으로 만든 깃발을 들고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 총력

글로벌 에너지 중심지 지향

전남도가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에 총력을 쏟고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에너지 도시로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상풍력 특별법,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분산에너지법 등 재생에너지관련 4개 법안의 조속한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간부회의에서 재생에너지 4법 제·개정을 통한 전남의 미래 먹거리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단의 노력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전남이 분산에너지와 재생에너지 100(RE100)의 글로벌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4개 법안의 제·개정을 통한 법적 기반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이에따라 재생에너지 4개 제·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직접 건의하는 등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상풍력 특별법의 경우 기존 해상풍력 기업의 사업권을 보호하고 지자체의 예비지구 신청 권한을 강화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면서 해상풍력 사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중이다.

영농형 태양광 특별법은 영농형 태양광 사업 확장을 목표로 사업 주체를 법인까지 확대하고 사업 영역을 농업진흥구역까지 넓히는 형태로 관련 법안을 준비중이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전력계통 포화 문제 해결을 위해 전력계통 입지 선정 단계부터 전남 같은 전력계통 포화지역, 대규모 재생에너지 발전지역을 우선 고려토록 특별법안에 담는 방안을 구상중이다.

특히 고속도로 건설비의 절반을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것처럼 ‘에너지고속도로’(송배전 시설) 건설에도 한전이 일방적으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정부 재정 지원을 건의하고 있다.

지난 6월 시행된 ‘분산에너지법’의 경우 인센티브 제도를 반영해 데이터센터 등 전력 소모가 큰 기업이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전남 미래 100년 이끌 혁신인재 육성 ‘호남 청년 아카데미’ 개강

‘에너지전환 호남의 선택’ 주제 11월 9일까지 5회차 진행

전남도가 지난 7일 장흥 통합의학컨벤션센터에서 대한민국과 전남을 선도할 미래 혁신 인재를 육성하는 ‘호남 청년 아카데미’ 제5기 개강식을 가졌다. ‘호남 청년 아카데미’는 호남 청년이 자존과 자긍심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전남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핵심 리더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전남의 대표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다. 민선 8기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개강식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성 장흥군수, 김재승 장흥군의회 의장, 전남도의회 윤명희·박형대 의원 등이 참석해 5기 수강생들을 응원했다. 개강식은 축하공연, 김영록 지사의 인사말, 김성 군수 축사, 도지사와 5기 청년들과의 소통간담회, 교육생 대표 선출 등으로 이어졌다.

소통간담회에서 김영록 지사는 청년들에게 전남의 미래비전을 직접 소개하고, 청년들의 정책 건의사항을 비롯해 고민을 들어주며 격의 없이 편안한 분위기에서 소통 시간을 가졌다.

김영록 지사는 “이번 5기 호남청년아카데미는 김대중 대통령님의 탄생 100주년을 맞아 열려 더욱 의미가 크다”며 “청년이 도전하고 활약해 새로운 미래 주인공이 되도록 힘껏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제5기 호남 청년 아카데미는 ‘에너지전환 호남의 선택’을 주제로 11월 9일까지 5회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1회차에는 개강식과 소통간담회, 조별 네트워킹을 통해 연대를 강화하고, 2회차에는 명사특강으로 김미경 아트스피지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변화의 시대 리더로 사는 법’ 주제강의가 진행된다. 3회차와 4회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 및 신재생에너지 현장탐방, 5회차는 조용민 전 구글코리아 상무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창의인재’, 지웅배 천문학자의 ‘오늘은 달 탐사’ 강의와 수료식으로 진행된다. 5기 과정을 이수한 수료생 전원은 ‘전남도 청년 서포터즈’로 위촉돼 전남도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제안하는 등 전남을 널리 알리는 홍보활동을 펼치게 된다.

‘호남 청년 아카데미’는 지난해 2월 출범식을 시작으로 제1기부터 4기까지 총 39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수료생들은 ‘전남 청년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

탄소중립·대기질 개선…전남도, 환경·산림 복지 실현

7163억원 예산 확보…친환경차 보급·수목원 조성 등

전남도가 내년 친환경차 중심 사회로의 전환에 적극 나선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뿐 아니라 전기충전기와 수소충전소를 크게 늘리는 한편, 대기오염 핵심 배출원 개선에도 예산을 집중 투입키로 했다.

8일 전남도에 따르면 내년 탄소 중립과 대기질 개선, 대기오염물질 저감 사업 등에 968억원의 예산을 확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청정 대기환경 개선에 나선다.

환경 분야의 경우 756억원을 들여 전기차 6112대, 수소차 832대를 보급하는 한편, 미흡한 전기충전기 확대를 위해 200기를 늘리고 수소충전소도 기존 8개소에서 15개소로 확대해 운영하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후차 배출가스 저감시설 구축, 중소·영세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사업에도 212억원을 들여 핵심 배출원 개선을 추진한다. 또 탄소흡수원 확충 ,지속가능한 정원·휴양시설 확충, 경관·소득숲 조성 등을 통해 생활권 녹색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609억원을 확보했다. 여수·광양 국가산단의 원활한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광양 공업용수도 4단계 공급사업과 국립난대수목원 조성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내년 환경산림 분야 예산으로 167개 사업 7163억원의 정부예산을 환경산림분야 예산으로 확보해 하후 기후위기에 대비한 환경·산림 복지 실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